

새해 아침 단상

한민족이 경험한 굴욕의 역사



권인선 칼럼니스트, 좌원공파회장

우리 근 현대사(現代史)에 가장 뼈아픈 기억은 일제 강점기 36년간이며 아직도 그 뒤처리를 맡겨주지 못하고 있다. 강제 징병(徵兵)과 징용(徵用), 정신대의 상흔(傷痕)이 가슴 깊이 남아 있는가 하면 그 원혼(冤魂)들이 만주 땅과 연해주, 남태평양(南太平洋)의 정글에서 지금껏 떠돌아다닌다. 같은 동포끼리 총질을 했던 한국전쟁(韓國戰爭)의 비극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자 천만 명 이산가족의 슬픔도 쉽게 아물지 않을 깊은 상처다.

세계 역사를 보면 지도자는 위기에서 더 빛이 난다. 영웅은 전쟁 이상 가는 난세에서 태어난다고 했었지만 우리 근세사(近世史)를 되돌아보면 불행하게도 그런 영웅이 없었다. 25살 나이의 원세개가 청군 8백 명을 이끌고 갑신정변(1884)을 일으킨 개화파를 사활 만에 전격 진압한 역사적(歷史的) 사실만도 그렇다. 친일, 친청, 친러로 나누어 패 각립으로 허구한 날을 허비했던 19세기, 구한말을 살았던 우리 지도자들은 왜 그리도 지지리 못났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고종 21년 때 일이다. 고종이 단종의 이모부였던 죽림공(竹林公, 諱 山海, 諡 忠愍)에게 내린 吏曹判書 加增은 친일, 친러로 갈리고 매관매직 부정부패로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가는 의정부 대신들에게 竹林公의 忠節정신을 본보기로 삼으려한 특별한 조치였다. 이처럼 고종이 400년이 훨씬 지난 일을 꺼낸 것은 竹林 權山海 처럼 나라를 지킬 충절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다.

고종(高宗)은 대한제국(大韓帝國) 선포 13년을 앞둔 1884년(고종 21년)봄 사육신(死六臣)의 단종 복위(端宗復位)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영주 순흥에서 위리안치(圍籠安置)된 금성대군(錦城大君)과 순흥 백성들이 무참하게 살육되던 날, 예천 대주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죽림(竹林) 권산해(權山海) 공에게 吏曹判書를 추증하고 충민(忠愍)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

당시 고종(高宗)이 선왕(先王) 대에 이미 죽림(竹林)공에게 내린 吏曹判書 加增은 日本과 러시아 세력에 빌붙어 자리를 탐하고 매관매직으로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된 부패관료들에게 “단종의 이모부로 성품이 강직하고 義와 孝를 중히 여긴 당대의 문신”상을 본보기로 삼으려 했던 흥종의 뜻을 드러낸다.

청일전쟁(1894)을 앞둔 조선(朝鮮)의 의정부(議政府)는 친러파가 득세한 가운데 친일 세력을 넓히기 위해 혈안이 된 일본(日本)이 친러 세력의 우두머리로 지목했던 민비(閔妃) 시해 사건을 일으키기 10년 전이었다.

친일 친러 세력다툼에 빠진 당시 조선(朝鮮) 조정은 고종(高宗) 임금의 왕권이 서지 않았는가하면 자기 세력의 부패 행위는 눈감아주는 시대였다. 백골정포(白骨徵布)라는 말이 가장 유행했던 시기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국을 지키려는 리더십은 형태만 다를 뿐이다. 말하자면 “신 안보 환경”으로 바뀌어 갈 뿐이다. 지금 바이든이나 시진핑, 일본의 기시다 등 2023년을 이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보면 국가이익(國家利益)과 자신들이 처한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약소국(弱小國)을 서슴없이 밟고 나갈 기세다. 이러니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변화 물살이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의 싱크 탱크들이 경쟁적(競爭的)으로 내놓는 향후 10년의 예측 상황 보고서 들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간추려보면 참으로 흥미롭기도 하지만 마음이 편치 못한 부분이 군데군데 들어있다.

우선 한국은 몇 가지 현안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주변국의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남북한의 대칭구도가 그렇다. 중국이 굴기(屈起)하고 일본이 육일승천(旭日昇天)하면 그 사이에 낀 한반도는 언제나 위태위태했다.

한 무제가 융성했던 시기에는 고조선(古朝鮮)이 멸망했고 구한말의 치욕적(恥辱的)인 패배는 한 세기 전 일이다. 이것이 과거 역사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운명이다. 근세사에서부터 몇천 년에 걸친 굴욕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중. 일이 얼마나 두려운 나라인지를 우리 국민만이 잘 모른다는 사실 또한 그렇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다. 중국의 국민총생산은 지난 100년간 뒤쳐졌던 일본을 추월했다. 물론 미국의 상대적(相對的) 우위는 여전히 선명 하지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다 수직 상향 등식이다. 동아시아 질서 속에 우리가 처한 위치가 곤혹스럽기 짝이 없으니 위정자의 결정 또한 고민일 것이다.

연일 으르렁거리는 김정일의 북한 체제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부담이다. 핵은 남한 사회에 천안함 사태 같은 고통을 안길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생존전략(生存戰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과거사는 세 나라를 결속시킬 힘이 될 수도 있다. 아시아 공동체(共同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중국 내셔널리즘의 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적 소통의 리더십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 가장 필요할 시기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20>



권갑현 편집위원장

〈청하집〉은 청하(靑霞) 권극중(權克中, 1585~1659) 공의 시문집으로 7권 2책이다.

공은 안동권씨 시조 대사공의 23세(世)로 북야공파(僕射公派)이며 전북 정읍(井邑) 고부(古阜) 송산(松山)에서 부친 진사(進士) 권준(權俊, 1556~1647)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정지(正之)이고 호가 청하(靑霞)이다.

공은 석계(石溪) 최명룡(崔命龍, 1567~1621)에게서 초학(初學)을 배우고 그의 추천으로 장성(長城)의 현주(玄洲) 조찬환(趙贊煥, 1572~1631)에게 배웠으며 16세에 석계의 추천으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에게 배웠다. 교유한 분은 봉곡(鳳谷) 김동준(金東準, 1573~1661), 백석(白石) 류집(柳楶, 1585~1651),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 1597~1673), 태호(苔湖) 김지수(金地粹, 1585~1639) 등이다.

28세에 거주지 고부(古阜), 전력(前歷) 훈도(訓導)로 임자(壬子, 1612) 식년시(式年試)의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잠시 성균관에 유학하였으나 곧 낙향하였다. 인조반정(仁祖反正) 후에 거듭 징명(徵命)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았다.

공은 효종 10년 1659년 4월 1일에 75세로 졸하였다. 도암(陶菴) 이재(李穡, 1680~1746)가 행장을 지었다. 유림과 후학이 발의하여 정읍(井邑) 이평(梨坪)의 서산(書山)에 서산서원을 세워 제향하였다.

배우 의인(宜人) 장녕조씨(長寧趙氏)는 목사(牧使) 조한량(趙漢良)의 따님이다. 묘소는 전북 정읍 고부(古阜)의 소성전(所聲殿) 외탄동(外炭洞)에 건좌(乾坐) 합폄이다.

공의 저서로는 문집인 〈청하집〉을 비롯하여 〈참동계주해(參同契註解)〉·〈역대사요(歷代史要)〉·〈비요복사결(備要卜筮訣)〉 등이 있으며 〈경연의대(經筵疑對)〉·〈중흥십조(中興十條)〉 등의 글도 남겼다. 문집에는 공의 시문과 성리학에 관한 답문내용인 〈독서록(讀書錄)〉이 실려 있다.

이 중에서 〈참동계주해〉는 필사본으로 내단사상(內丹思想)의 기본 경전인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를 주석한 것이다. 〈역대사요〉는 필사본 51권 13책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중흥십조〉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참동계주해〉는 〈위백양주역참동계(魏伯陽周易參同契)〉라는 제목으로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공은 졸년(卒年)인 1659년 1월에 자신의 시문(詩文)을 수습하고 정리하여 1책으로 만들어 아들 권상신(權相信)이 요절한 관계로 손자 권덕수(權德壽)에게 전해주었다. 권덕수는 공의 사후에 공과 교유가 깊었던 정두경(鄭斗卿)에게 이 유문(遺文)에 대한 서문을 청하여 받았다. 한편 자손들이 재정이 어려워 곧바로 간행하지 못하다가 민진원(閔鎭遠, 1664~1736)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해오자 공의 문인인 김우정(金遇澄)이 민 관찰사에게 부탁하여 1704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하게 되었다.

〈초간본〉은 민진원의 발문에는 여덟 편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7권 2책으로 편집되어 있다. 현재 충남대학교 도서관, 전북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두에 민진원이 1704년에 쓴 발문, 뒤에 추가로 판각(板刻)한 조문명(趙文命)이 지은 묘갈명, 1665년에 정두경이 쓴 〈시집서(詩集序)〉, 공이 생전에 직접 편집한 시고(詩稿)에 쓴 〈서설(序說)〉, 정두경이 공에게 보낸 시(詩) 2수, 뒤에 추가 판각한 도암 이재가 지은 〈행장〉이 실려 있다.

권1~7은 모두 시로서, 권1은 5언고시(五言古詩) 37체(題)이고, 권2는 7언고시(七言古詩) 25체이며, 권3은 5언배율(五言排律) 4체이고, 권4는 5언4운(五言四韻) 47체이며, 권5는 7언4운(七言四韻) 68체이고, 권6은 5언소시(五言小詩) 16체이며, 권7은 7언소시(七言小詩) 30체로, 모두 227체이며 시체별(詩體別)로 편집되어 있다.

공은 특별히 장편시를 많이 지어, 남병상(南兵相)을 위해 지은 〈축석편(矗石篇)〉은 70구(句)이고, 〈송박남평선생유관동산수(送朴南平先生遊關

청하집(靑霞集)

東山水)는 142구에 이른다. 이 밖에 인조(仁祖) 반정 후 임금의 구언(求言)에 대해 민간의 고통(苦痛) 등 여러 사회문제를 20가지로 나누어 풍유(諷諭)하고 자서(自序)와 총결(總結)까지 덧붙여 총 22장(章)으로 지은 〈신악부풍유시(新樂府諷諭詩)〉,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이 술을 마셨다는 유상대(流觴臺)에서 고인(古人)을 읊은 시, 특이한 자연물인 화초석(花草石), 사산(沙山), 자명석(自鳴石)을 읊은 〈박물삼장(博物三章)〉, 칠연사운과 칠연소시에 같은 제목으로 읊은 〈관기(觀妓)〉 등의 시들이 특이하다. 만시(挽詩)는 최명룡(崔命龍), 김집(金集), 김지수(金地粹), 류집(柳楶), 김준(金俊) 등을 위해 지은 것이다.

이 초본은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고전종합DB〉에서 구두점이 붙은 원문 이미지와 컴퓨터 입력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다음은 본집 권1의 첫 번째인 오언고시(五言古詩) 〈사물을 대할 때의 느낌을 읊은 3수[感遇三首]〉로서 각각 소나무[松], 난초[蘭], 쇠뿔이[鐵]를 읊었다.

落落千丈松(낙락천장송) / 生在深山裏(생재심산리) / 前臨無底壑(전림무저학) / 後有不測水(후유불측수) / 既抱棟樑材(기포동량재) / 何生窮絕地(하생궁절지) / 雪虐又風饑(설학우풍도) / 參天幾萬祀(참천지만사)

천 길 높다란 소나무 한 그루 / 깊디깊은 산속에 살아 있더니 / 앞엔 바닥없는 골짜기 임해있고 / 뒤로는 깊이 모르는 강이 있네 / 이미 마루대 들보 재목감인데 / 어찌 외딴 곳에서 살고 있는가 / 눈이 해치고 또 바람 몰아쳐도 / 하늘을 찌른 지 몇 만 년인가

靡靡深谷蘭(미미심곡란) / 終歲無人過(종세무인교) / 羊苜蓿葉盛(천천경엽성) / 爲被春陽和(위피춘양화) / 如何生僻地(여하생벽지) / 徒爾馨香多(도이형향다) / 雖有清風吹(수유청풍취) / 只在幽澗阿(지재유간아)

깊은 골짜기의 아름다운 난초는 / 한 해 다가도록 찾는 이 없네 / 풀과 잎 왕성하고 무성하니 / 온화한 봄볕 받았기 때문이네 / 어찌 후미진 곳에 살고 있으며 / 공연히 향기만 많이 뿜고 있나 / 맑은 바람이 부추킨다고 한들 / 다만 그윽한 시내 언덕에 있네

蜀山雌雄鐵(속산자용철) / 掘自靑靑泥(굴자청청니) / 鍊彼頑礦質(연피완광질) / 成此精純姿(성차정순자) / 浪作屠龍刀(낭작도룡도) / 長捐無用時(장捐무용시) / 庖丁操短刀(포정조단인) / 從傍笑嗤嗤(종방소악악)

속산에서 나는 암컷수컷 쇠뿔이는 / 푸루푸루한 진흙에서 파낸 것인데 / 저 단단한 성질 쇠뿔도 단련하여 / 이렇게 순수한 자태를 이루었다네 /浪作屠龍刀(낭작도룡도) / 쓸데없이 용을 잡는 칼이 되었으나 / 쓸데 없을 때는 영영 버려진다네 / 백정은 짙막한 칼을 손에 쥐고서 / 곁에서 키득거리며 비웃고 있네



안동권씨 의성義城 입향조 행정(杏亭) 권식權軾 선생과 사촌리沙村里 행단杏壇(1423~1485)



행정 권식 선생을 기리는 기전정사



14세손 정인이 쓴 행단 시판



행정 권식 선생 유허비

자는 자여(子與)이고 호는 행정(杏亭)이다. 부정공의 차자 별장공 휘(諱)균량의 8대 손으로 직장 휘아(雅)의 손자요 청산현감 상의(尙宜) 아들이다. 세종 5년, 1423년 계묘 3월 15일 안동부(安東府)의 동성문의(東城門外)에서 출생하였다.

안동권씨 의성 입향조 杏亭(행정) 權軾(권식) 선생과 사촌리 행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명 서림 즉 가료순(천연기념물, 제 405호)과 향나무(경상북도 기념물(107호)가 있어 나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아볼 곳이다. 그러나 이렇게 알려진 것, 의외 숨은 명소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행단(杏壇)이다. 행단은 유학의 종조 공자(BC 551~BC479)가 곡부(曲阜)에서 입간(林間)수업을 했던 데서 유래 된다.

이를 두고 그 숲이 은행나무라고도 하고, 살구나무라고도 한다. 실제 중국에서도 혼동하고 볼 수 있는데 대성전 앞의 행단에는 살구나무와 은행나무가 혼식(混植)되어 있고, 공자의 후손이 사는 공씨

가(孔氏家)에서는 행단에 빠타 은행나무 열매를 요리의 재료로도 쓴다. 그러나 1645년(인조23)합천(咸軒, 1508~?)이 동지사(冬至使)서장관으로 중국에 갔다가 곡부현 권리(闕里, 공자의 탄생지)에 들러 후손 공대춘(孔大春)을 만나 선물로 받아온 그림을 1887년(고종24)전주 지역 화가 나능호(羅能浩)가 베껴 그려 행단현가도(孔子杏壇絃歌圖,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40호)를 보면 살구나무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나무로 굳어져 성균관, 학교 등 유학을 가르치는 곳에 심는다.

특히 고불(古佛)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의 고택(사적 제109호)을 맹서행단(孟氏杏壇)이라고 하는데 고불이 두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고 학문에 정진하며 제자를 가르친 데서 유래한다. 행단 이라는 말을 고유명사화 한 곳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다. 추로지향(鄒魯之鄉)은 영남지역을 묘사한다. 행정 권식 선생은 1452년(단종1)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어 사마(司馬)를 거쳐 1454년(단종2) 창원

향교 교수로 있으면서 주자의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적용하여 엄정한 규율로 학생을 가르치니 훗날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는 토대를 쌓았다. 1457년(세조3) 비운의 왕 단종이 승하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이곳 사촌에 터를 잡으니 배위는 영인 안동김씨이며, 갑목관 김자점의 딸이다.

세조가 교도(敎導), 시직(侍直) 등의 벼슬을 내리며 다시 조정에 복귀하기를 청했으나 병을 핑계로 끝까지 출사하지 아니하고 지조를 지켰다.

이후 행단을 쌓고 은행나무 3그루를 심어 학문과 시문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1485년(성종16) 향년63세로 졸했다.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맏이 흠조는 진사, 둘째 경조는 문과에 급제하여 사맹을 셋째 송조는 별시를 역임했다. 遺稿(유고)로 杏亭先祖實記(행정선조실기)가 있다.

후손에 장기 현감 권희순, 이조판서에 추증된 권수경 등을 비롯해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 행정은 사촌으로 들어와 행단을 조성하고 은행나무 3그루를 심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회를 입

어 2그루는 고사하고 1그루만 광복 후까지 온전하게 자랐으나 한국전쟁 때 소실 됐다. 공이 행단을 두고 읊은 시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공자 행단의 현승을 일찍이 따르지 못했으니 / 杏壇絃誦未曾從(행단현승미증종)

남겨 놓은 뿌리 캐어 스스로 심었노라 / 採得遺根手自栽(채득유근수자봉)

자손에게 전하노니 정성드려 보살피라 / 寄語雲仍須勿剪(기어운잉수물진)

뒷날 행단의 위용을 닮아감을 보리라 / 佇看他日習儀容(저간타일습의용)

이 시문을 보면 공자가 행단에서 즐기던 현악기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 의미를 살펴 은행나무를 심었으니 후손들은 정성스럽게 가꾸어라. 그때들의 성취를 지켜보라라고 말을 맺었다.

1860년(철종11) 사람의 공의로 공을 제향하는 기천리사(沂川里祠)를 지었으나 1896년 일병(日兵)의 방화로 소실되자 1934년 후손들이 기천정사(沂川精舍, 의성군 문화유산 제38호)와 동구 입향조 행정 권식 선생 遺墟碑(유허비)가 모셔져 있다. 행정의 행단은 유학(儒學) 영남지방의 명소가 될 수 있다.

杏亭 權軾 선생의 16世孫 承薰은 6.25동란시 폭격에 행목이 불타서 고사함으로 그 자리에 다시 심어 지금에 이르지만 우람한 옛 수령은 구전으로 남는다. 그 루터기에서 나무가 자라서 현재 은행나무 고유 모습을 잘 유지하고 수세도 좋다.

한국청소년신문사 상임고문 권병표

Table with 5 columns: 번호, 성명 및 단체, 금액, 지역, 비고. It lists donation information for the '2022년 12월 1일자 1면에 보도된 '임인년 추향 현성공' 광고 내용'.